

# YOUN Jiyoung



이 작품은 '타투'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적 규범을 탐구한다. 타투는 개인의 이야기를 담는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, 이 작품은 이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해석한다. '타투'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규범을 탐구할 수 있다. 이 작품은 '타투'라는 단어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적 규범을 탐구한다. 이 작품은 '타투'라는 단어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적 규범을 탐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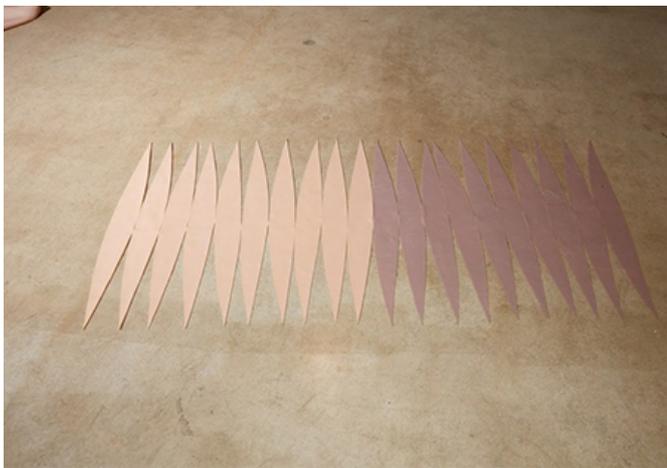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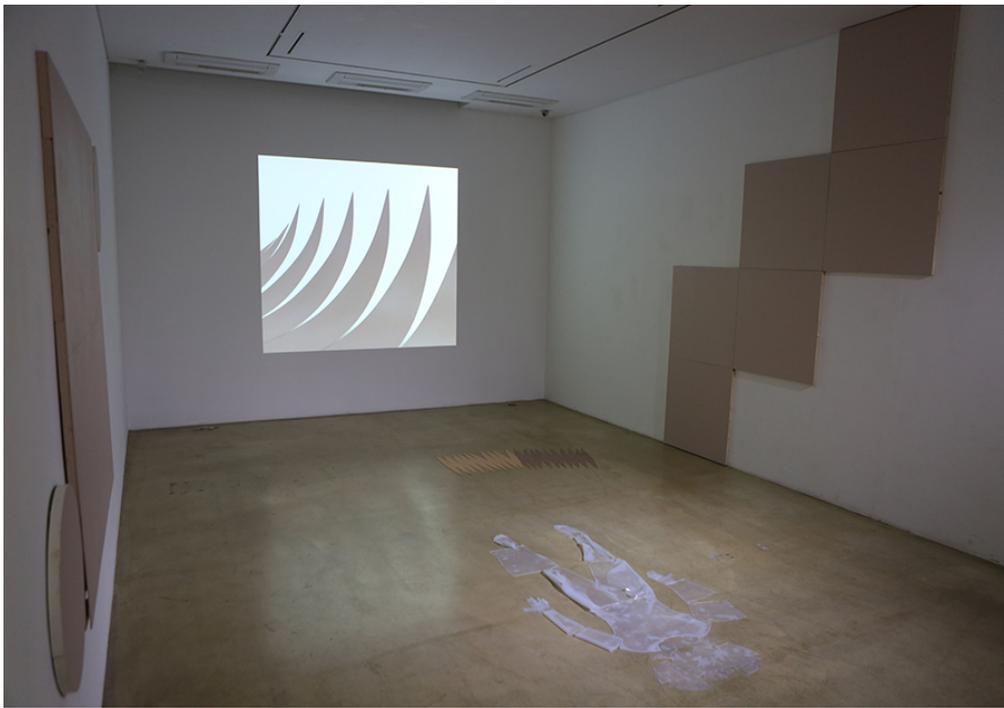


타투, 170x221x166cm, 230x60x60cm (3pcs), 타투, tattoists: BAKA, Ida, Sunjae, 2019 (타투, 타투, 타투)

## # Q&A

Q.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요?

A. 이 작품은 '타투'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적 규범을 탐구한다. 타투는 개인의 이야기를 담는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, 이 작품은 이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해석한다. '타투'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규범을 탐구할 수 있다. 이 작품은 '타투'라는 단어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적 규범을 탐구한다. 이 작품은 '타투'라는 단어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적 규범을 탐구한다.



이 작품은 **구(No Planar Figure of Sphere)** (구, 2018)이다.

Q. 이 작품은 구(구)를 어떻게 표현했는지, 구의 특징은 무엇인가?

A. 이 작품은 '구(구)를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'을 목표로 하였다. 구의 특징은 모든 방향에서 볼 때 동일한 모양을 보이는 것인데, 이 작품은 구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구의 단면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, 각각의 조각을 평면적으로 표현하여 구의 형태를 재현하였다.

이 사진은 2013년 10월 34일 촬영된 것으로, 'Blowfish-like'라는 제목을 가진 사진이다. 이 사진은 숲속에서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. 이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고 등에는 큰 가방을 메고 서 있다. 이 사진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이다.



**Blowfish-like**, 2013년 10월 34일. 사진: [이름], 2013

Q. 이 사진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?

A. 이 사진은 'Blowfish-like'라는 제목을 가진 사진으로, 'Blowfish-like'라는 제목을 가진 사진이다. 이 사진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이다.



**무관심 (Regardless)**, 40 33분, 30분 영상 3편, 2018

Q. 이 작품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?

A. 이 작품은 관객에게 '무관심'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, 이 주제를 통해 관객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. 또한 이 작품은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. 이 작품은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.





이 사진은 (Seeing things the Way We See the Moon), 2014년 4월, 서울, 한국, 2013-2014

Q. 이 사진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?

A.



출처 : [jiyoungyoan.com](http://jiyoungyoan.com)